

WTI 출추고 Dubai유는 고공안정

9월28일 WTI 66.30달러로 1.36달러 상승 ... Dubai유는 56.21달러

9월28일 국제유가는 미국 정제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석유제품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면서 상승했으나 중동산 두바이(Dubai)유는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28일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현물가격은 배럴당 66.30달러로 전날보다 1.36달러, 북해산 Brent유는 62.78달러로 0.12달러 올랐다.

반면, 두바이유 현물유가는 미국의 전략비축유 추가방출 계획 등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0.67달러 하락한 배럴당 56.21달러를 형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유가는 전날보다 1.28달러 상승한 배럴당 66.35달러에,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 선물유가는 0.96달러 오른 63.93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9/23	9/26	9/27	9/28
현 물	Dubai	56.90	55.37	56.88	56.21
	Brent	61.91	62.09	62.66	62.78
	WTI	64.62	66.92	64.94	66.30
	Oman	58.70	57.17	58.66	58.05
	Tapis	67.49	66.03	67.26	66.62
NYMEX 선물(WTI)	11월	64.19	65.82	65.07	66.35
	12월	64.52	66.03	65.35	66.46
환율(원/달러)		1039.90	1044.70	1045.80	1047.0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의 가솔린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Rita 상륙에 따른 정제시설 가동중단이 단기 석유 재고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상승했다.

<화학저널 2005/09/30>